부산연등회, 도심 밝힌 '상생의 연등'

부산불교연, 봉축연합대회 봉행
정오 스님 "자비로 아픔 치유"
하정선 염불공양회장에 공로패
시민과 함께 걷는 제등행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불교연합회는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시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발원하는 지혜와 자비의 연등이 부산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에는 연합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삼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해진 정사(진각종) 등 대덕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운집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대회사에서 "천지동근(天地同根)이요 만물일체(萬物一體)라, 세계는 일화(一花)"라며 참된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죄 없는 이들의 목숨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그 자비로움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온 진리"라고 설했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 세계 곳곳의 전쟁은 인류 모두에게 큰 아픔"이라며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문을 열기 위함이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곧 화합과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는 부산연등회가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부산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연등 행사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기쁨을 시민 모두와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오늘 도심을 수놓을 연등 행렬이 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잠든 부처님을 깨우는 고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펴 온 하정선 불교TV 염불공양회장에게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원만한 회향을 치하하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하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30년이 넘도록 불자 가정이나 무연고 영가의 장례식장을 찾아 염불 공양을 올리고 장례 일체를 지원하며 전국을 다녔다"고 회고하며 "새벽 일찍 출상하기 위해 가족을 뒤로하고 불철주야 함께 해 준 회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지켜주신 대덕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법요식 이후에는 부산영산재보존회의 탄생불 이운을 선두로, 사부대중이 다솜광장 주변을 행진하는 장엄한 제등행렬이 이어졌다. 행렬의 선두와 중간에는 거대한 용, 하얀 코끼리, 장엄한 석탑 모양으로 전통 한지를 발라 만든 대형 '장엄등'이 주위를 환하게 밝히며 장관을 연출했다.

부산여성불자회, 불자 청소년에 장학금

중 · 고등학생 20명에 800만원
인도 분황사 지원금 1000만원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지역 불자 청소년들의 학업을 격려하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5월 12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이날 금정중 3학년 안동현 학생을 비롯해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20명의 파라미타 청소년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스님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를 기원하며 "장학금의 참된 목적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는 데 있다"고 격려했다.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훗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여식에서는 인도 부다가야에 위치한 한국 사찰 분황사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을 위해 1000만원의 지원금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불교교류協 여성부, 봉축 만발공양

송상현 광장서 3000인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도심 한복판에 차별 없이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무차만발공양'의 장이 펼쳐졌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5월 10일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무차만발공양을 개최했다.

백 회장은 "비가 오면 시민들이 불편할까 싶어 열흘 전부터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날씨에 맞춰 3000인분을 준비했다"며 "전문 인력과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오랜 노하우로 원활하게 대중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이 따뜻한 행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물들인 '태화가람대축제' 성료

5월 8~10일, 시민과 함께한 축제



울산 시민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태화가람대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불기2570년 울산 태화가람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기존 봉축 연등축제를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불교문화축제로 마련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봉축위원장 혜원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울산과 대한민국, 세계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마하사 토지수용 또 '승소'

부산지방법원, 5월 14일 판결

부산 마하사(주지 대방 스님)가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판사)는 5월 14일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수용재결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 없이 수용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앞선 2월 12일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900여㎡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화엄회 "의료진 응원이 곧 환우 치유"

5월 14일, 부산대학병원서
24년째 이어진 자비나눔
병원 직원 1650명 위문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부산비구니 화엄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병원에 따뜻한 자비 손길을 전했다.

부산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 봉사 모임 화엄회(회장 묘선 스님·전국비구니회 부산지회장)는 5월 14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화엄회는 수건과 떡, 음료 등 정성껏 구성한 위문품 1650인분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회장 묘선 스님을 비롯해 총무 성안 스님, 재무 선초 스님, 교무 휴담 스님, 부산대병원 불교법당 담당 성봉 스님 등 임원진이 참석해 자비행에 동참했다.

그간 화엄회는 조를 짜서 직접 병실을 돌며 환우들을 위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 예방과 환자 보호 차원에서 병실 라운딩이 전면 제한됐다. 이에 화엄회는 봉사의 방향을 전환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관리부서 직원들을 위문키로 한 것. 환자의 치유 환경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이들을 격려해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질 높은 보살핌이 돌아가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자비 실천이다.

화엄회 회장 묘선 스님이 부산대병원 관계자에게 떡과 수건, 음료 등이 담긴 위문품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회장 묘선 스님은 "예전에는 스님들이 조를 짜서 두 번씩 병실을 돌며 직접 환우분들을 뵙고 위로를 건넸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교법당을 찾아오시는 분들과 애쓰는 의료진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직접 뵙고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작게나마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환우분들 모두 부처님 같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속득쾌차(速得快差)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원로원장 혜윤 조허(금강사)
종회의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규정원장 일초(상주 연화사)
고시원장 자혜 수봉(대광사)
호법원장 덕현(성현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 화 원 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원장 선행
포교부원장 혜원
교육부원장 법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